

기술혁명 이끄는 벤처캐피털... 창투사 지분투자 관심집중

퓨리오사 관련 창투사 주가 급등
초기 투자로 높은 수익 창출 기대
증권가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한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AI 인수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창업투자회사(창투사)가 주목받고 있다. AI 등 '기술'로 무장한 K스타트업이 성장세를 잇고 있어서다. 창투사들은 이들의 젖줄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한파는 수그러들었지만, 금리가 안정되는 등 거시 환경이 나아지면서 몇몇 투자사들은 지갑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창투사 주가도 치솟고 있지만, 시장참여자들은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이들이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AI 분야 등 K-스타트업 투자 주목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DSC인베스트먼트와 TS인베스트먼트는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퓨리오사AI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나우IB(20.38%)와SV인베스트먼트(13.46%), 컴퍼니케이(5.25%), 캡스톤파트너스(3.95%), SBI인베스트먼트(4.13%) 등도 강세를 보였다. 창투사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글로벌 투자시장 활성화' 이미지

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는 비상장사 투자 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AI 등 빅테크 관련 기업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려는 이들의 자금이 개별 종목에 그치지 않고 창투사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다.

증권가는 창투사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경계한다. 시장가치와 시가총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분투자를 하는 창투사 특성상 상장으로 인한 수익도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창업투자

사 수익 및 투자 구조를 잘 모르고 무작정 주식을 산다면 과도한 가격에 주식을 구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운용 수익과 투자사의 포트폴리오를 본 뒤 창투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정부가 바이오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자 이 분야 기업들이 코스닥을 한동안 떠받친 적이 있다"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트렌드와 주식시장 변화를 눈여겨보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 글로벌 창투사, 벤처캐피털 산업 뒷받침... 韓 투자시장 '우물 안 개구리'

오늘날 미국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이다. 과연 무엇이 미국을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과 차이나게 했을까. 시작하는 있지만, 창투사들이 이끄는 벤처캐피털 산업이 한 몫을 한다. 이들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창업자들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혁신생태계를 만들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현재 전 세계의 기술 혁명을 이끄는 '매그니피센트 7',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엔비디아, 메타(구 페이스북), 그리

고 테슬라가 탄생할 수 있었다. 국내 투자시장도 해빙기를 맞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도의 10조 9133억원에 비해 1조 324억원, 9.5% 증가했다. 투자시장의 덩치는 커졌지만,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에서 창투사들이 대접 받으려면 미국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과 같은 흥린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고, 투자사들도 성장할 수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스타트업의 장기적 성장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창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초기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타보다는 흥린'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성공했을 경우 기업이 가져올 이익이 막대하다면 그만큼 모험을 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투자 산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창투사들에 모든 리스크를 지라고만 할 순 없다. 업계 한 임원은 "정부나 정치권이 모험적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털 기업에 세제 및 지원 혜택을 주는 등 시스템을 만든다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퓨리오사AI, 반도체 NPU 개발... '레니게이드' 등 선배

(신경망처리장치)

삼성·AMD 출신 백준호 대표 설립 일각서 이달안에 인수논의 마무리 전망

글로벌 소셜 미디어(SNS) 기업 메타가 한국의 인공지능(AI) 칩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퓨리오사AI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퓨리오사AI는 삼성전자와 AMD 출신 엔지니어



어인 백준호 대표(사진)가 2017년 설립한 랩리스 스타트업으로,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NPU(신경망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퓨리오사는 2021년 AI 반도체 '워보이'를 출시한 데 이어, 2022년에 더 진보된 '레니게이드' 칩을 시장에 내놓았다.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의 최신 G

PU 'H100'에 견줄만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에너지 효율과 비용에서 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타의 퓨리오사AI 인수는 그들의 자체 AI 칩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AI 칩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가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가운데, 메타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AI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메타는 엔비

디아 칩의 고가 구매를 지속하기보다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과 기술 독립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메타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협력, 맞춤형 AI 칩을 개발 중이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650억 달러(약 93조 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포브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타와 퓨리오사AI가 인수 논의 중이라면서 인

수 논의가 이르면 이달 안에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퓨리오사AI의 메타 인수가 완료되면, 퓨리오사AI는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유니콘 기업은 창업 10년 이내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칭한다. 현재 퓨리오사AI는 총 1억 1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달 초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20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은행, DSC인베스트먼트, 네이버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www.icdonggu.go.kr

금곡로 67 동구의회